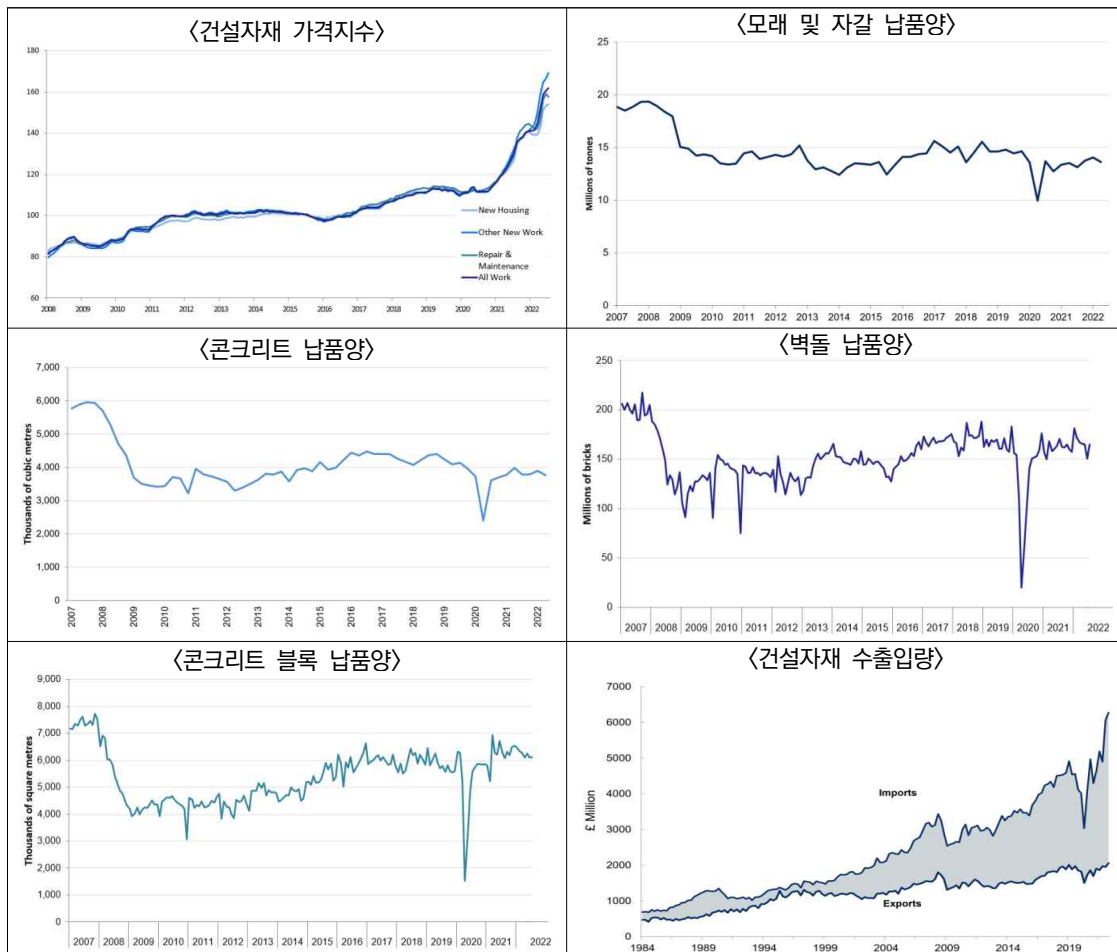


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(2022.09월)

※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·교통 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(22.09.01~22.09.30)

□ 건설산업의 자재 및 각종 요소에 대한 월간통계조사보고서[9/7]

-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에서는 건설자재가격지수, 벽돌, 시멘트 및 콘크리트 블록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함.
 - 건설자재 가격지수의 경우에는 7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4.1% 증가, 전월 대비 0.6% 증가.
 - 모래 및 자갈의 납품량의 경우에는 2분기를 기준으로 1분기 대비 3.2% 감소, 전년 동분기 대비 0.6% 감소.
 - 콘크리트의 납품량의 경우에는 2분기를 기준으로 1분기 대비 3.3% 감소, 동년 전분기 대비 5.4% 증가.
 - 벽돌의 납품량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.9% 감소, 동년 전월 대비 9.8% 감소.
 - 콘크리트 블록의 납품량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.5% 감소, 동년 전월 대비 0.2% 감소.
 - 건설자재의 수출입량은 2분기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수입량은 3.5% 증가, 수출량은 5.6% 증가.
- ☞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건설자재 가격지수에서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함.



※ 건설자재가격지수는 2015년을 가격 100을 기준으로 작성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statistics/building-materials-and-components-statistics-august-2022>

□ 10월부터 에너지 가격 보장 시행[9/8]

-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(Department for Business, Energy & Industrial Strategy)에서는 10월 1일부터 일반적인 영국 가정이 향후 2년 동안 연간 평균 2,500파운드의 이하의 에너지 요금을 지불하는 '에너지 가격 보장(Energy Price Guarantee)'을 시행한다고 보도함.
- 일반 가정은 앞으로 2년의 에너지 가격 보증에 따라 연간 최소 평균 1,000파운드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추가로 400파운드의 할인도 추가됨. 이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 및 공공 부문 조직은 겨울 동안 동등한 지원을 받게 됨. 또한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계획은 영국 내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시장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.
-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보장은 영국의 가구에 적용되며 북아일랜드의 가구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제공됨. 또한 향후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4~5포인트 억제하여 국가 부채 상환 비용을 줄이는 등 영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.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government-announces-energy-price-guarantee-for-families-and-businesses-while-urgently-taking-action-to-reform-broken-energy-market>

□ 2022년 7월 건설생산량 통계[9/12]

- 통계청(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)에서는 매월 건설업계의 단기 생산량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.
- 월별 건설생산량은 2022년 7월 기준 전월대비 1.4% 감소하였으며, 이는 신규공사 +0.3%, 유지보수 -2.6%에 기인하고 있음. 업종별로는 공공주택의 신규 물량이 -13.1%, 수리 및 유지보수에서 공공주택이 -8.0%, 민간주택이 -2.6% 감소하여 월별 감소에 기여함.
- 분기별 건설 생산량(건설생산량을 최근 3개월)은 2022년 5월 ~ 7월에 1.4% 증가하였는데, 신규 작업과 수리 및 유지보수에서 각각 +2.7%, -0.7% 증가한 것에 기인함.
-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월별 건설 생산량은 2022년 6월 1.4% 감소에 이어 2022년 7월 월별 건설 생산량은 0.8% 감소했습니다. 이는 7개월 연속 성장 이후 월간 건설 생산량이 두 번째 연속 감소한 것임. 또한 분기별 생산량을 보면 3개월 연속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지만, 이번 성장률은 2021년 12월까지의 3개월(1.0%) 이후 가장 느린 성장률을 나타냄. 전반적으로 건설자재의 높은 가격에 따라 새로운 신규주문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수요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로는 가계와 기업의 지출비용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

👁️ 건설생산량 통계기준: 영국 전체 건설작업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2종류인 신규공사와 수리 및 유지보수로 나누고 있으며, 구체적인 공사종류로는 3개의 큰 대분류에 9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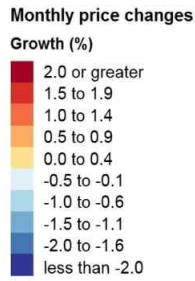
(1) 신규주택(New housing) - 공공주택(public), 민간주택(private)

(2) 그 외의 신규공사(Other new work) - 인프라(infrastructure), 공공(public), 민간산업(private industrial), 민간상업(private commercial)

(3) 수리 및 유지보수(Repair and maintenance) - 공공주택(public housing), 민영주택(private housing), 주택 외(non-housing)

※ <https://www.ons.gov.uk/businessindustryandtrade/constructionindustry/bulletins/constructionoutputingreatbritain/july2022>

□ 2022년 7월 영국 주택가격지수[9/14]



- 토지등기국(HM Land Registry)에서 2022년 7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함.
- 영국의 7월 주택가격지수의 헤드라인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평균가격은 £292,118이며, 연간 가격변동 +15.5%, 월별 가격변동은 +2.0%, 가격지수는 153.2(2015년 기준=100)로 전년 및 전월 대비 모두 상승.
- 영국의 지역별 가격변동에서 특징적인 지역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 Scotland, East Midlands는 0.6%로 가장 낮은 상승, West Midlands Region는 3.8%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임. 전년 대비 기준으로 London은 +9.2%로 가장 낮은 상승을 보이고, South West는 +20.7%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
- 영국의 부동산 유형별 평균가격에서는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+15.5% 상승함. 유형별 특징적인 통계로는 Detached(단독주택)가 +17.3%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며, Flat/maisonette(빌라/작은 저택)는 +9.3%로 가장 최저상승을 보임. Semi-detached(2세대 주택)은 +16.8% 상승, Terraced(다세대 주택)은 +16.5% 상승을 보이고 있음.
- 영국의 부동산구매 거래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현금거래의 평균가격은 £277,007이며 전월대비 +2.2%, 전년대비 +15.4%, 담보대출은 £305,102이며 전월대비 +2.0%, 전년대비 +15.9%, 최초구매자의 평균가격은 £243,705이며 전월대비 +1.8%, 전년대비 +15.1%, 유주택자의 평균가격은 £342,250이며 전월대비 +2.2%, 전년대비 +16.4%을 기록함
- 전반적으로 영국의 부동산가격은 전월, 전년 대비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짐.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statistics/uk-house-price-index-for-july-2022>

□ 2022년 8월 영국 월간 부동산 거래통계[9/21]

- 국세청(HM Revenue & Customs)에서는 매월 £40,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논평을 게재하며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헤드라인 통계만 수록함.
- 2022년 8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4,980건으로 전년대비 7.6% 높고 전월 대비 1.1% 높음.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14,440건으로 전년대비 9.7% 낮고 전월 대비 4.4% 높음.
- 8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,180건으로 전년대비 1.0% 높고 전월 대비 1.3% 높음.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9,930건으로 전년대비 5.3% 높고 전월 대비 1.7% 높음.
- 영국 부동산 거래에 대한 최근 연도비교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며, 부동산 거래량은 6월과 9월의 거래량 피크값에 사이에 있고 이 기간에는 비수기 패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. 일반적으로 “인지세 휴일”로 알려진 주거용 인지세 토지세의 일시적으로 인상된 무세율 범위의 변경 및 종료로 인한 것임. 따라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이러한 행동변화를 “사전 방지 (Forestall)”라고 함.

☞ 주거 거래량: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거래량
비주거 거래량: 주거 거래량을 제외한 산업용 부동산, 농지, 숲 등의 부동산거래량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statistics/monthly-property-transactions-completed-in-the-uk-with-value-40000-or-above>

□ COP26, 세계 지도자들의 참여 촉구[9/21]

- 내각부(Cabinet Office)에서는 11월에 열리는 COP26()회의에 세계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기후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보도함.
- COP26 회장인 Alok Sharma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제공하고 포용적인 농촌 변화를 촉진 하면서 세계의 산림을 보호, 보존 및 복원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에게 COP27에서 산림 및 기후 지도자 파트너십의 출범에 동참할 것과 미래의 COP 의장단이 매년 산림에 대한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에 합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.
- 올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산림 및 기후 지도자 파트너십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면서 다양한 지역, 산림 지역, 경제 및 금융 중심지를 대표하는 회원국들은 변혁적 행동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것임. 여기에는 산림에 대한 높은 저탄소 시장과 관련된 협력, 무탄소에 기여하는 강력한 산림 경제 구축,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적용 가능한 산림 보유권 확보 및 보호, 산림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 확대가 포함됨.
-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에 대해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. 1)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기업, 긍정적인 산림 경제 및 공급망 확장 2)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이니셔티브와 적용 가능한 소유권 지원 3)산림에 긍정적인 공공 및 민간 재정 동원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leaders-will-build-on-glasgow-legacy-to-establish-forests-climate-leaders-partnership-at-cop27>

□ 영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5천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[9/23]

- 기업·에너지·산업전략부(Department for Business, Energy & Industrial Strategy)에서는 영국 산업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약5천만 파운드의 정부 자금이 오늘(2022년 9월 23일) 제공된다고 보도함.
- 4,940만 파운드는 철강, 세라믹, 제약 및 식품 생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연료 전환 기술의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국의 선구적인 프로젝트에 제공될 예정임.
- 산업 연료 전환은 산업 에너지 사용을 고탄소 연료에서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여 2050년까지 Net Zero에 도달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, 일자리 및 번영을 촉진한다는 영국의 목표에 따라 산업을 탈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산업용 연료 전환 경쟁의 2단계에서 연료 전환 프로젝트는 4,940만 파운드의 정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으며, 이는 2022년 5월 프로젝트 설계에 대한 초기 타당성 조사를 위해 21개 프로젝트에 560만 파운드를 수여한 경쟁의 1단계에 연장 정책임.

※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nearly-50-million-boost-for-britains-industrial-future>